

사회운동의 '틀' 바꿔야 한다

“정책생산·재원조달 등 한계 많다” 자성 잇따라
 불교 바탕한 대안 모색으로 공감대 넓혀야

정토회가 활동방식을 상근자 중심에서 회원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들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토회의 회원 중심의 운동방식은 단순히 활동인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생산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소수 그룹에 의해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기존 대부분의 단체들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들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의 변화를 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사회운동단체들은 이같은 변화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교사회운동단체는 정토회,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평불협 등 30여 개 정도. 하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활동으로 연결시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처능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당수 단체들의 대표자가 스님이고, 승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현재의 승-제가 구조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견해가 많다.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결국 효과적이고 파급력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게 되고, 이것이 대중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이벤트성 행사에 급급하게 되고 이슈를 생산하기 보다는 쫓아다니기에도 벅할 수밖에 없다.
 A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호주제 폐지 문제나 조계종 비구니부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단어가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고 반문한 뒤 "사회와 불교 내부의 이슈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책생산은 꿈같은 얘기"라고 말한다.
 B단체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 근본적으로 단체들이 갖는 한계가 큰

밥'과 같은 법령을 마련해 단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실련이 좋은 모델이 된다. 경실련은 활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이슈와 관계가 있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 등 3자가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불교계도 내부 관계자들에게 의한 정책 결정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단체들이 지금까지 이슈를 쫓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슈를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실련 위원회 사무국장은 "예를 들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불교단체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교단체들이 불교라는 가치를 통해 움직이는 만큼 이런 종교성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서영스님은 "재원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교가 지향하는 사회가치에 대한 사부대중의 인식공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교생/중학생/고등학교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21박 22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왕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춤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 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펠레교도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땅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 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0-9592-1987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생 마감하는 순간이라도 부처님 만나길 ...

중앙승가대 학인 56명 '호스피스' 교육
 고대 안암병원서 6주 코스 ... 학점과 무관



중앙승가대 학인 56명은 임종직전 환자의 고통을 보살피는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대 병원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호스피스자문봉사자 교육을 수강한다. 앞에 선 이들은 같이 공부하는 일반인들.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는 것이 부처님의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서울 안암동 고려대 병원 8층 대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3월 1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회(회장 이규원)의 자원봉사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모인 사회복지학과 2, 3, 4학년 비구·비구니 56명이다.
 첫 시간은 혈액종양내과 김일홍 교수의 '암의 최신치료법' 강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약사여래의 화현이 될 학인 스님의 눈빛은 무

척이나 빛났다. "실제 몸이 아픈 신도들을 대하는데 적절한 대처방법 배우고 싶어요(2학년 혜진)" "늘어나는 노인들이 행복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스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2학년 향림)" "이론이 아닌 임상에서 말기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보고 싶어요(3학년 용훈)"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학인들이 고려대 병원 호스피스 과정을 수강하게 된 것은 지난해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지현 스님의 권유력분이다. 지현 스님은 이미 9년째 이곳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이웃종교인 천주교와 기독교의 경우,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임종직전의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개종시키는 적극적 선교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심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다. 불자는 물론 비종교인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진정한 불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호스피스 봉사를 간절히 바라는 임종환자들이 수없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구나 학점이 수에 필요한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수강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던 김려원 수간호사는 "타종교 성직자들의 교육수강은 꾸준했지만, 이번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인각 스님 / 3월 26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요즘 인사 "부자되십시오" 하는데

근세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 할까요?

그림: 조태호

해국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삶의 지혜를 원하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책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가르침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밖으로부터 불행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왔다고 생각한다. 하나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자신이 괴롭게 되는 것은 그 불행과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끌어 잡아당기듯이 끼리끼리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고(苦)'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저자 안양규 / 값 9,000원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www.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02)737-0696 **역시아문**